

THE CHURCH IN TORONTO

열 두 광주리 가득히 아침부흥 제 10 주

두 종류의 생활 원칙

2008년 1월 21일 ~ 2월 2일

제 1 부: 성경 말씀과 찬송

찬송: 401, 402, 815, -, 964 (영 540, 541, 1142, 504, 1152)

성경: 갈라디아서 3:1-29, 4:1-31

제 2 부: 계시와 진리를 위한 아침부흥

제 10 주 : 두 종류의 생활 원칙

☞ ☞ ☞ ☞ ☞ 월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창세기 2:9

9.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 골로새서 2:13

13.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 사도행전 17:28上

28.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원칙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 사람을 위한 식물에 대하여 생각하셨다. 생명을 주는 것이 생명의 시작이었지만, 식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을 창조하셨으므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생각하셔야만 했다. 사람은 단순히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생활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기 위하여 식물에 의존하였던 것과같이, 생활을 위하여 하나님께 의존하기를 원하셨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행 17:28). 따라서, 하나님은 비유로써 우리에게 두 나무를 쓰셨다.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 나무가 그 비유이다. 이 나무들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다른 종류의 식물을 사람이 갖고 있으며 생명에 의하여 살거나 선과 악의 지식, 즉 옳고 그름의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옳고 그름을 그들의

생활 규범의 원칙으로 여기는 반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의 규범으로 생명의 원칙을 택하고 있다.

... 이 두 가지의 삶의 원칙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사람이 옳고 그름에 따라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 가운데 선과 악의 지식나무만을 갖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생활 가운데 생명나무를 갖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모두 다 갖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셨으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살리라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과 악의 지식으로 사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위치를 잃을 것임을 또한 보여 주셨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하여 살기를 원한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말할 때, 나는 우리가 이미 죄의 원칙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걷고 있다는 가정을 한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옳고 그름 혹은 선과 악의 원칙에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옳고 그름의 원칙, 선과 악의 원칙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기독교는 생명에 관한 것이지만 어떤 규범을 따르는 문제가 아니다. 기독교는 생명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지만 선과 악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 나는 당신이 주 예수를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은 후에 당신 속으로 어떤 놀라운 것을 얻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당신은 다른 생활의 원칙을 얻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것에 대하여 모른다면, 생명의 원칙을 옳으로 하고 옳고 그름의 원칙을 따르기 시작할 것이다. (워치만 니, 『두 종류의 행동 원칙들(Two Principles of Conduct)』, 1-2)

☞ ☞ ☞ ☞ ☞ 화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갈라디아서 3:11, 24-26

- 11.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 24.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5.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
 26.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니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옳고 그름의 원칙을 따르는 것의 의미

무엇이 옳고 그름의 원칙인가? 만약 우리의 행위가 옳고 그름의 원칙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면,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옳은지 그른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인가 아니면 악한 것인가? 그것이 선한지 아닌지를 물을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하여 옳은지 그른지를 너무 많이 생각한다. ...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하기를 조심함으로써 그들 자신 스스로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긴다.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 2:17). 기껏해야, 이것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유일한 실행이다. 좋게 보아서, 이것인 단지 선택과 거절, 즉 선을 취하고 악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외적인 선택이나 외적인 악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거기에 절대적인 규범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오늘 어떤 선한 것을 취하고 어떤 악한 것을 거절할 수 있지만,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이것은 구약이며 율법이고 세상적인 종교이며 인간적인 도덕이고 윤리이지 기독교는 아니다.

◆ 기독교는 생명에 근거하고 있음

무엇이 기독교인가? 기독교는 생명이다. 기독교는 무엇이 옳고 그름에 관하여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문제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단지 외적인 규범으로 선과 악의 규범만을 보았다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적인 규범을 주시지 않았다. 기독교는 새로운 십계명이 아니다. ... 기독교는 우리가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거나, 선하거나 악하다는 것을 따지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말하도록 하게 만드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속에서 옳다고 느낄 때,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기뻐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속에서 강하게 기쁨부음을 느낄 때, 우리는 생명을 가진 것을 안다. 많은 경우 어떤 것이 옳고 사람의 눈에 선하지만, 이상하게도

속의 생명은 아무 반응이 없고 차갑게 되고 움츠려든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이 내적인 생명에 따른 것이지 외적인 옳고 그름의 규범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구원받지 못한 많은 세상적인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원칙에 따라 그들이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의 가장 좋은 규범에 따라 살아간다. 만약 여러분이나 내가 옳고 그름의 원칙에 따라 산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규범이나 율법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다. 우리의 주제는 인간 도덕이나 관념들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인간적 비판이나 의견에 따라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단지 하나의 질문만을 갖고 있다. 우리의 내적 생명이 뭐라고 말하는가? 만약 생명이 강하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다. 만약 생명이 차갑고 우리 안에서 움츠려든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 ...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실 때 무엇이 진정으로 옳은지 볼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생명이 내적으로 있는 것을 느낀다면, 그 일은 옳은 것이다. 우리가 만약 내적으로 생명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틀린 것이다. 옳고 그름은 외적 규범이 아니라 내적인 생명에 의하여 결정된다. (同, pp. 2-5)

☞ ☞ ☞ ☞ ☞ **수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요한일서 2:20, 27

- 20.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 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5:10上, 11-13

- 10.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
- 11.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 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 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

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생명의 규범은 선의 규범보다 더 높음

일단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악한 것을 모두 피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단지 선하기만 한 모든 것들을 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생명에서 나오는 것을 행할 수는 없다. 우리는 악한 것들과 선한 것들과 생명에 속한 것들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것들과 생명에 속한 것들만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7)고 하셨다. 여기 「선과 악」이 하나의 노선이고, 「생명」이 또 다른 노선임을 주목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악하다고 해서 거절할 수 없으며, 선한 것조차도 거절하여야만 한다. 선의 규범보다 더 높은 규범이 있다. 이것이 생명의 규범이다.

내가 처음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나는 모든 악한 것들을 피하려고 하였으며, 나 자신이 선한 것을 하려고 애썼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악한 것을 피하고 선한 것을 하는데 있어서 놀라운 발전을 한 것으로 비추어졌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었다. 내가 옳고 그른 것을 추구하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분명히 하려고 하였다. 그때 나보다 두 살 위의 동역자가 있었는데, 우리는 항상 동의하지 못하고 있었다. ... 그러나 내가 아무리 주장하여도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이유는 그가 나보다 두 살 위라는 것이었다. 나는 다른 여러 이유들로 논쟁 할 수 있었지만, 그가 나보다 두 살 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논쟁 할 수 없었다. 나는 이 논쟁을 피할 수 없었지만, 속으로는 그의 말에 동의 할 수 없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영적 체험이 풍부한 어떤 나이 많은 자매에게 이야기하고 그녀의 중재를 구하였다. 그가 옳았는지 내가 옳았는지를 물었다. 그녀는 그가 옳다고도 그가 틀렸다고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그가 말하는대로 하세요。」라고만 말했다. ... 그녀는 「주 안에서 어린자가 나이 많은 자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러나, 주 안에서, 어린자가 옳고 나이든자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순종해야 합니까?」라고 반론하였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띠며 「그가 하자는 대로 당신이 하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말했다.

한번은 어떤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려하였는데, 우리 가운데 세 사람이 그것을 맡게 되었다. 내가 가장 어렸고, 나보다 두 살 위의 형제가 있었으며, 나보다 일곱 살이 더 많은 우 형제였다. 나는 「당신이 나보다 두 살 위이므로 나는 모든 것을 당신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 형제님은 연장자이므로 당신이 그에게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봅시다.」 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이 침례에 대한 일을 협의하였으나, 그는 우 형제의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사건건 그는 자신의 방법대로 하기를 주장하였다. 마침내, 그는 「내게 이 일을 맡겨 두세요. 내가 혼자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속으로, 「도데체 무슨 논리란 말인가? 당신은 나보다 연장자라고 항상 내게 복종할 것을 고집하였는데, 당신은 당신의 연장자에게 전혀 복종하려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했다. 즉각적으로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그 자매를 다시 찾았다. 나는 그녀가 옳고 그른 문제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에 흥분하였다. 그녀는 일어서서 내게 물었다. 「당신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인지 보지를 못하였습니까? 지난 수 개월 동안,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이 옳고 이 형제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여 왔습니다. 당신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나는 옳고 그름을 고집하고 있어 왔다. 나는 생명에 관한 것도 십자가에 대한 것도 보지를 못하였다. 이어서 그녀는, 「당신은 이 일을 하는데 있어 당신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내게 이 일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유를 들면 모두 옳겠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의 속에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속 느낌은 무엇입니까?」 나는 단지 내가 이유를 들었을때 옳았지만 내적 생명에 따르면 잘못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은 악한 것뿐만 아니라, 선하고 옳은 것도 다루어야 한다. 많은 일들이 사람의 규범에 따르면 옳겠지만, 하늘에 속한 규범에 따르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므로 잘못되었다고 선언할 수 있다. 내가 말했던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이 빛을 보았다. 그때로부터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 생활이 생명의 원칙을 따랐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한 옳고 그름의 원칙에 따라 살았는지를 나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단지 옳기만 하기 때문인가?」 라고 확인하려 하였다. 모든 것에 대한 요점은 이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옳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도 또한 옳다고 말하겠지만, 주님의 생명이 우

리 안에서 일어나는지 혹은 어떤 것을 하기 시작했을 때 움츠러드는지 물어야 한다. 어떤 것을 시작할 때, 기름부음을 느끼는가 아니면 무겁게 가라 앉는 것을 느끼는가?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옳은 궤도 위에 있다는 상승감을 갖는가, 아니면 하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생명은 옳고 그름의 외적인 것에 따라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느낌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사망의 느낌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생명에 따라 이뤄진 결정은 우리 속에서 올라가든지 내려간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선하고 옳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안의 주님께 물어보아야 한다. 주께서 주시는 속 느낌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기쁨을 느끼는가? 우리에게 영적 기쁨과 평강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적 노정을 결정하는 것들이다.』 (워치만 니, 『두 종류의 행동 원칙들 (Two Principles of Conduct)』 중에서, pp. 5-11)

☞ ☞ ☞ ☞ ☞ 목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마태복음 3:16-17**

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 **마태복음 17:5**

5.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외적인 것들이 결정을 좌우할 수 없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잘못은 많은 경우 그들이 본것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배경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여러해 동안의 체험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무엇이 정말 옳고 그른가를 모른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내적 생명에 근거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외적 요소들만 갖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있어 외적인 것들을 따라 결정한다. 그러나 생명

은 다른 문제이다. 생명이 있는 자들이 생명이 무엇인지 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이것을 보기 원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생명으로부터 동떨어져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 내적 생명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면 옳은 것이며 내적 생명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면 그른 것이다. 아무도 어떤 외적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없다.』

형제들이 실질적 영향력으로 일하는 어떤 장소에 대하여 상기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진실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 만약 그들이 하는 일이 완전한지 아닌지를 나에게 묻는다면, 약간의 개선될 점이 있다고 말해야만 했을 것이다. 매우 겸손하게 그들은 개선할 점에 대하여 지적해 줄 것을 내게 요구하였기에 나는 이런 저런 것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여러차례 내게 요구하였지만, 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내가 화가 났을까? 아니다. 어리석은 자는 회를 났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흥분할 수 없었다. 다만 나는 수정이 필요한 외적인 것들만을 지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무언가 하셔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말할 길이 없었다.

다른 장소를 방문하였는데, 형제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나와 함께 어떤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였고 그들이 그렇게 해야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내게 물었다. 나는,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분명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들도 이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하기 위한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의 생명이지 옳고 그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자들만이 한쪽에서 침묵하고 있었다. 이 두 원칙간의 차이는 매우 컸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 대조는 너무도 크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무엇을 하는데 있어서 단지 옳고 그른지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따라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제기하는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증가하는가 하락하는가 이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길을 결정하여야 할 점이다.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결정된다.

◆ 『하나님께 귀 기울이라』

변화산에서 모세가 나타났으며 외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대표하며, 엘리야가 나타났고 외적이고 인간적인 표준으로 대표되었다(마 17:3). 우리는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며 엘리야가 선지자들을 대표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율법의 기준

이 제시되었으며, 선지자의 기준이 제시되었다.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은 말하기에 충분하였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그들을 침묵시키셨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 저의 말을 들으라」 (5절). 오늘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준은 율법도 아니며 선지자들도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은 이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이다. 따라서, 우리가 옳고 그른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어떤 것에 동의하는 하늘에 속한 생명에 대한 문제이다. 종종 놀랍게도 우리 안의 생명이 우리가 인정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본다. 이럴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고집하여서는 안 된다. (同, pp. 11-14)

☞ ☞ ☞ ☞ ☞ **금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마태복음 5:39-45上**

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0.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

📖 **마태복음 5:12上, 20**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예언자(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신성한 생명은 만족되어야 함**

나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며 눈을 갖고 있는 두 형제의 이야기를 하겠다. 눈에는 물을 대야한다. 그들의 눈은 언덕 중간쯤에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은 조금 아래쪽에 있었다. 매우 날씨가 더운 낮에는 물을 끌어 그들의 눈에 물을 채웠다.

저녁이 되어 잠이 들었다. 그러나 그들이 잠든 사이에 아랫 논의 한 농부가 형제들의 논 주위를 지나는 관개 수로에 구멍을 내어 모든 물이 그 자신의 논으로 흘러들게 하였다. …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조용히 참아야 할 것이라고 느꼈다. 이 일은 일주일 동안 매일 일어났다. 어떤 사람들이 밤에 감시자를 두어 도둑을 잡아서 때려 줄 것을 제의하였다.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다만 참고 있었다.

사람의 관념에 따르면, 그들은 매일 물을 대면 다시 도둑맞기를 여러차례 당한 후에도 조용이 인내하였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승리감에 걸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상하리만큼 그들이 매일 물을 대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훔치더라도 조용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 속에 평강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일에 경험이 많은 어떤 형제를 만나러 갔다. … 그는, 「당신들은 충분히 행하지 않았으며 더우기 충분히 인내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먼저 당신의 물을 훔쳐간 사람의 논에 물을 먼저 채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들의 논에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의 속에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동의하였다. 다음날 평상시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자신들의 논보다 그들의 물을 훔쳐간 사람의 논에 먼저 물을 채웠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그 사람의 논에 물을 채우자 더욱더 기쁨이 넘쳤다. 그들이 그들의 논에 물을 채우려고 왔을 때 그들의 마음 속에 평강이 있었다. 그들은 그 사람이 그들의 물을 훔쳐가도 좋다는 생각에 평강이 있었다. 이 일을 한지 이삼일이 지나서 그들의 물을 훔쳤던 그 사람이 와서 사죄를 하며 「이것이 기독교라면, 나도 그것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영역에서 인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에게 무엇을 더 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이 형제들은 평상시의 날씨가 아닌 매우 더운 날 온종일 물을 대기 위하여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농부였다. 그들은 옳은 일과 선한 일을 하였다. 그들에게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여전히 그들 속에는 평강이 없었다. 이것은 생명의 노선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하고 있는 노선이다. 옳고 그름의 노선은 다른 노선이다. 사람은 옳은 것은 충분히 좋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오직 생명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속에서 기쁨과 평강이 산출되는 지점을 향한 것을 해야 한다. 이것이 생명의 노선과 옳고 그름의 노선과 다

른 것이다. 옳고 그름이 충분하고 다른 것은 필요치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옳은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만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있는 산상수훈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은 의롭게 되는 것이 충분치 않다는 것 그 이하로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을 행해야 한다. 이것이 마태복음 5~7장, 산상수훈의 내용이다. 산상수훈은 옳은 것에 따라 행해진다면 모든 것이 옳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빵을 치며 다른 빵을 대라고 한 이유를 사람은 묻는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쳤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좋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를 비난하지 않고 크게 억제하는 것을 보았다면 놀랍지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머리를 낮추고 맞았을 때 그대로 가더라도 충분치 않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내적 생명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빵을 때린 사람에게 다른 빵도 돌려야 한다. 이것은 우리 마음 속에 분노가 없다는 뜻이다. 우리는 화를 내지 않으며 이런 대우를 두번 참을 수 있다. 생명은 겸손하다. 생명은 다른 빵을 또다시 맛도록 돌려낼 수 있다. 이것이 생명의 노선이다.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5~7장이 너무 어렵다고 말한다. 나는 이것을 수궁한다. 마태복음 5~7장의 것을 실행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우리가 시도한다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다른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만약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기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형제나 자매 때문에 얼마나 마음 상하였다 하더라도 상관 없다. 우리가 그 형제나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내적인 기쁨이 없을 것이다. 침묵 가운데 견디는 것은 좋지만 만약 우리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적인 즐거움이 없을 것이다. 산상수훈은 우리 안의 하나님의 생명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와 같은 것들을 할 때 하늘에 속한 생명은 만족하며, 해방되고 평강 가운데 있으며 기뻐한다. 이것이 전체적인 문제이다. 우리는 생명의 노선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옳고 그름의 노선을 걷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분명하게 읽는다면, 옳고 그름의 원칙으로 문제들을 결정하는 것이나 살고 행하고 우리 존재를 우리 자신의 생명에 따라 갖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볼 것이다. (워치만 니, 『두 종류의 행동 원칙들

(Two Principles of Conduct)』, pp. 14-17)

☞ ☞ ☞ ☞ ☞ **토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고린도전서 4:3-4**

- 3.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 4.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 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 **고린도후서 5:7**

- 7.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안으로 생명의 충만함이 있어야 함**

때때로 우리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을 한 형제를 마주치게 된다. 합당한 것에 따르면 우리는 그 형제를 강하게 타이르거나 비난해야 한다. 그에게는 심각하고 철저한 다름이 요구된다고 우리 자신에게 말한다. 그가 며칠간 주변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닳치게 될 상황에 대하여 우리 자신들을 준비한다. 그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지만, 바로 그때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옳은지 그른지를 묻게된다. 그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으므로, 우리는 그를 타이를 수 밖에 없는가? 그의 집문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기 위하여 손을 올리지만, 속으로는 문제가 있다. 우리의 올린 손은 우리 옆으로 떨어진다. 우리가 옳다고 우리 자신을 확신하였지만,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우리가 어떤 형제를 타이르 때 많은 경우에는, 그 형제가 정중히 우리의 권고를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할 것을 약속할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가 그에게 더 가르칠수록 우리의 속은 더 약해진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 형제를 타이르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받아 들여야 한다. 따라서, 그것은 선하거나 나쁜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생명의 충만함의 문제이다.

또 다른 예를 들겠다. 며칠전 한 궁핍한 형제를 만났다. 그는 매우 가난하여 도움이 필요하였다. 나는 어떤 곳에서도 그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이 예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나는 여유가 없었으므로 그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커다란 희생이었다. 합당한 것에 따

르면 내가 옳았다. 내가 그에게 약간의 돈을 줌으로써 기뻐야 했다. 하지만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내가 그에게 주기로 약속한 돈을 그에게 주었으나 속으로 기운이 빠지고 있었다. 한 목소리가 내속에서, 「당신은 단지 자선 행위를 한 것일 뿐이다. 그것은 생명의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적인 자선이고 천연적인 친절이다. 생명 안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 속에서 행하였다.」 라고 속삭였다.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나는 그 문제로 이 삼 주일을 고민하면서 고통을 겪었다. 내가 그 형제에게 돈을 주었지만, 집에 왔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했다.

◆ 우리의 생활과 행동들은 생명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함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들은 선과 악에 의하여 결정되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속의 생명에 따라야 한다. 생명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생명이 없이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얼마나 선한지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줄 수 없고 내적 정죄만 가져다 준다. 한 그리스도인이 그가 저지를 되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한 선한 것들에 대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야 한다. 우리 생활의 원칙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생활이 아니다. 우리는 생명에 속한 것과 사망에 속한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 우리 속에 생명을 갖고 생명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때, 합당한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이 솟아 오르지 않을 때 우리 존재 안에서 기름부음을 느낄 수 없으며, 우리가 옳고 그름에 따라 행하는지를 관심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여야 한다.

바울은 아무런 것도 자신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판단하셨다고 말했다(고전 4:3-4). 많은 사람들은 고린도 전서에 있는 이 구절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문장은 매우 단순하지만, 생명을 모를 때에는 매우 어렵다. 우리가 선과 악의 외적인 규범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잘못하거나 옳바를 때 판단하기 매우 쉽다. 바울은 옳고 그름의 외적인 규범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다만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고 말하였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판단할 자는 주이시다. 더하여 우리 안에 우리

를 이끄는 생명이 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5장 7절의 이유이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는 어떤 것을 외적이고 눈에 보이는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내적으로 주시는 이끄심에 따라 산다.

...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따라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율법의 요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요구를 보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것은 매우 쉬워질 것이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구할 때, 즉각적으로 속에서 빛 비춤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거듭남이 사실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또한 하나님이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것도 사실이다. 주님이 계속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고 계신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한다. 『내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아닌 생명나무로 인하여 살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생명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느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원칙에 따라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안에 커다란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 (同, pp.18-20)

제 3 부: GTA 권속 교통

기도의 부담

1. Gr. 6 을 위한 필요를 채울 봉사자들을 주께서 공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 주일 집회에 모든 집회소로 오는 새신자들을 위하여 기도 바라며, 청소년과 대학생 가운데의 새신자들이 남은 열매가 되어 주께서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3. 2008년에 중국어 성도들의 부담인 가정교회 생활을 위하여 주께 기도합니다.
4. Ajax의 복음과 Lilian Lin(H1D1) 자매의 fish & chips 가게가 복음에 대한 부담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된 것을 위하여 주께 기도합니다.

소식 및 안내

【집회 시간 및 집회소 안내】

Lord's Table	Hall 1 & 3	Sunday, 10:00 AM	Hall 1	671 Sheppard Ave. E., Toronto, ON M2K 1B6 (416) 221-7610
Young People	Hall 1	Saturday, 7:30 PM	Hall 2	24 Cecil St., Toronto, ON M5T 1N2 (416) 977-5588
College Meeting	Hall 2	Friday, 7:30 PM	Hall 3	7 Gretna Ave., Toronto, ON M4A 2H5 (416) 757-7117
Grade 6 Meeting	Hall 1	Saturday, 7:00 PM	봉사회	매주 월요일, 오후 7:30
Prayer Meeting	Hall 1 & 3	Tuesday, 7:30 PM	소그룹1	매주 화요일, 오전 11:00시 (한국어 가정 소그룹1)
	Hall 2	Tuesday, 7:00 PM	소그룹2	매주 수요일, 저녁 7:00 (한국어 가정 소그룹2)
Homepage	www.churchintoronto.org		Home2	www.thechurchintoronto.ca

(이 아침부흥지는 영어 아침 부흥지를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 및 한글 아침 부흥지는 www.thechurchintoronto.ca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